

나주시-서울서초구, '우호증진·상생발전' 협약체결

윤병태 시장-전성수구청장, 서초구청서 업무협약 체결

문화·예술, 농업, 교육,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력사업 추진

나주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문화·예술, 농업, 교육, 산업·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나주시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구청장 집무실에서 '우호 증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21일 서초구청을 방문한 윤병태 시장이 전성수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 간 시정 다방면에 걸친 상생·교류 협력을 최종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11월 18일 서초구 국내·외 교류협의회(회장 함재성) 임원진과 서초구의회 안종숙 부의장, 박미정 운영위원장 등이 실무협의차 나주를 찾아 원도심 문화재, 한국에너지공과대

학교 등 교류 분야별 현장 곳곳을 방문하며 급물살을 탔다.

나주시와 서초구는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도시가 보유한 '문화·예술', '농업', '교육', '산업·경제' 분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본격화한다.

양 도시는 먼저 문화·예술적 역량·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공연 및 전시회 개최, 교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발굴 등에 적극 나선다.

서초구 소재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과 같은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시립예술단 교류 공연, 시·구민의 날 상호 예술단체 초청 등 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시·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협력 사항으로는 양 도시의 우수 농업기술 교류와 예비귀농인 지원체계 구축, 농촌체험관광, 먹거리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 제공, 로컬푸드 대도시권 홍보·판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나주 혁신도시 소재 세계적인 에너지 인재 양성 기관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와 연계한 교육 분야 협력 사업도 주목된다.

시는 서초구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 시즌을 활용한 쉼터 견학, 체험을 통해 에너지 관련 분야 학습 및 진로 모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주요 관광지 투어를 연계해 서초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에게 역사문화 관광도시 1번지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양 도시는 핵심 산업 관련 기업 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 부문에서도 힘을 모은다.

지역별 산업적 특성에 맞는 기업 투자 환경



과 보조금지원제도, 기업 혜택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투자·교류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양 지자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왕복 4차선 '삼천교' 재가설...개통식 개최

총 사업비 72억원 투입...교량 길이 96m 폭 18.5m



화순군이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삼천교의 재가설 공사를 완료하고 13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재개통된 삼천교는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길이 96m, 폭 18.5m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접속도로 99m를 개선했다.

다리 폭도 기존 8m에서 18.5m로 늘리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다. 차도와 함께 보행로 도로를 구분해 주민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경관조명도 설치해 야간 불거리도 제공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삼천교 개통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동절기 경로당 등 안전점검 실시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동절기 노인이용시설 빈틈없는 안전점검 지시

구례군이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됨에 따라 경로당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김순호 군수는 12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로당 등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빈틈없는 안전점검 추진을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경로당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지시하고, 이어서 동계 전지 훈련 유치 지원, 동절기 경로당 식사 방안 대책 강구 철저 등 꼼꼼한 군정활동 추진을 강조했다.

구례군은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사전 방지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을 대비하여 시설 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하반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운영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곡성읍 레저문화센터 5층

곡성군이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곡성읍 레저문화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제나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는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곡성군은 현재 1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에서는 호

남세무법인 두암지점 대표 유권규 세무사가 세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마을세무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을 담다, '2022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개최

담양군이 오는 17일 해동문화예술촌 일대에서 '담양을 담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2022년 풀뿌리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 성과공유회를 넘어 담양 축제 기획단 '담우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 및 운영하는 주민주도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 올해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물과 활동영상을 공유하는 전시장이 마련되며, 10대부터 70대까지 계층별 무대공연과 자화상 그리기, 전래놀이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3개의 중간 지원조직인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담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민위원회가 성과공유회를 같은 날 함께 진행하면서 중간지원조직이 함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올 한해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담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